



가톨릭마산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숨이 차오릅니다. 땀이 맺혀 흘러내립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은 시간 동안 마스크를 얼굴 삼아 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의 무서움이 우리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것은 비단 전염병의 무서움뿐만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숨길을 짓누릅니다.

더 나아가 가늠할 수 없는 크나큰 고난에 숨이 막혀 숨겨가는 이들이 우리 눈을 스칩니다.

고난에 짓눌려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35,4) 하느님께서서는 눈먼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열리는 치유의 시간을 약속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통해 생명의 회복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이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마르 7,34) 내쉬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한숨’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간절히 내뱉고 싶었던 깊은 탄식과 절규를 대신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과 인간의 고난이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열린 길이 됩니다. “에파타!” 곧 “열려라!”(마르 7,34)

우리는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향해 눈길을 돌리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한숨’을 통해 새로운 숨길을 열어 주십니다. 생명의 숨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새로운 숨길이 됩니다. 한숨만이 가득 찬 우리 삶, 한숨마저 막혀버린 고된 삶에서 성령께서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의 숨결이 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으로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새로이 불어 넣어 주시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숨을 쉬며, 함께 호흡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숨결이 머무는 곳,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손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며 고통을 겪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 터져 나오는 한숨으로 고난으로 막혔던 우리의 숨길을 여시고, 가려졌던 우리의 눈길을 열게 하시며, 우리의 움켜쥐 손길이 열리도록 이끄시어 우리 모두의 살 길 - 살아갈 길, 살아야 할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나오는 예수님의 한숨은 이제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신부 | 옥봉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35,4-7L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서 야고 2,1-5
복 음 마르 7,31-37

주일 진례



주초 바라기

여러분은 무슨 꽃을 좋아하는가?

나는 8~9월에 피는 해바라기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꽃이 아름답거나 씨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태양을 따라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해바라기의 속성 때문이다.

식물, 동물, 인간 할 것 없이, 생명체는 태양 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체는 늘 남향南向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중에서도 해바라기는 밤낮 구분 없이 태양을 향해 서 있다.

해바라기를 관찰해보자.

아침의 해바라기는 반가운 인사라도 하려는 듯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동쪽을 향해 있다. 한낮에는 줄기를 길게 뻗어 태양을 똑바로 바라본다. 또 저녁 무렵에는 해와 석별의 정을 나누기라도 하듯이 서쪽 하늘로 방향을 튼다. 그리고 밤에는 연인에게 실연失戀당한 것같이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틀어 동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꽃의 이름이 해바라기가 되었다.

해바라기를 일본어로는 히마와리ひまわり, 이탈리아어로는 girasole, 헝가리어로는 napraforgo, 한자어로는 향일화向日花라고 한다.

이런 해바라기는 언제부터인가 모습이 많이 변했다.

다른 식물에 뒤질세라 꽃 모양은 둥글게 더욱 커졌고, 키는 장대처럼 높아만 갔다. 자기만이 태양을 사모하고 독차지하려는 집념의 결과이다. 이렇게 지조志操 있게 살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태양을 닮은 꽃이 되었다.

해바라기의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해바라기에서, 태양을 닮았다는 뜻으로 ‘태양의 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sunflower, 독일어로는 sonnenblume라고 불린다. 생명의 원천인 태양 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태양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모습이 태양을 닮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태양 같은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현세적 삶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도 빛이 필요한데,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요한 8,12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신앙인들은 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회개悔改란 삶의 방향을 전환轉換 하는 것이라고 한다.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 세속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희생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도 하며, 미사에 참석해 성체도 모신다. 그래서 회개는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돌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 돌고 돌아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우리의 빛이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주초 바라기가 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나는 왜 성당에 다니는가

조정자 이사벨라 수필가/ 가톨릭 문인회

계절과는 상관없이 밤이거나 낮이거나 일할 때나 쉬 때나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나를 휘어잡고 있는 이것, 나는 왜 성당을 다니는가이다. 마땅한 답이 없다. 마치 왜 사는가라는 물음처럼, 필요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꼭 거쳐야 할 물음은 아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안 하는 것에 있어 삶의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변화로 이어질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결정을 생각 없이 하였겠느냐. 그때는 분명히 생각했고 그래서 선택했다. 착하게 살고 싶었다. 성당에 가면 착해질 줄 알았다. 복을 받고 싶었다. 착하게 살면 복은 절로 따라오는 줄 알았다. 온 생애를 복으로 채우고 싶었다. 노력해서 얻기보다 복에 더 의존했다. 착하게 사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폭탄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자폭이었다. 그때는 거꾸로 생각했다. 가장 쉽고 편안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그저 인사 잘하고 잘 웃고 잘 양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살던 대로만 살면 될 줄 알았고 그래서 성당이 내 몸에 딱 맞아 보였다.

그러나 사회가 보는 착함과 교회가 보는 착함은 달랐다. 사회는 기교와 표현에 의존한다면 교회는 치열하고 다이내믹했다. 구체적이고 선이 뚜렷했으며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다. 사회는 성향으로 판단한다면 교회는 태도를 원했다. 나약한 모습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명민하고 똑똑한,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부지런함을 원했다. 이미지가 아닌 실체였다.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던 나에게는 이것은 무섭고 끔찍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맞았다. 미리 알았다면 절대 들어서지를 않았을 것이다.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기쁘다.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전혀 다른 해석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도 세상 이치를 다 깨우친 것 같은 결과가 나온 위대한 결정도 나에게는 많았다.

가령, 지금 내 남편의 아내가 돼 있는 이 자리, 내 아들의 엄마가 돼 있는 이것, 당신의 후배가 돼 있는 이것, 선생님의 지인이 돼 있는 이것, 나답지 않은 내가 돼 있는 이것, 나보다 더 큰 내가 돼 있는 이것들이다. 성당은 나에게 해석의 기적을 주었다.

또한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우쳐 주었다.

복음적 자존심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가톨릭마산(교구보) 9월 5일자부터 매월 첫 주에 월간 생활성서 김용태 신부(대전교구)의 ‘지금 여기-복음의 온도’가 게재됩니다.

“싫어요!”

어느 날 아침,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제관까지 찾아오신 어느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 부탁이란 것이 ‘강론을 할 때 듣기 불편한 세상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신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말만 하라’는 요구였다. 겸손한 사제, 온유한 사제,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할 사제이지만 이번만은 그럴 수 없었다. 나의 ‘싫다’는 말에 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떠나가셨다.

‘복음적 자존심’이란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사제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짐승의 밥그릇만큼이나 낮아져야 하는 사제이지만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당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 원수에게마저 온유하고 친절해야 할 사제이지만 추상같은 위엄과 매서움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이다. 사제의 자존심은 복음적 자존심이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요한 3,16 참조)과 ‘한 자 한 획도 포기될 수 없는 복음적 자존심’(마태 5,18 참조)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렇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마태 16,24 참조)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마땅히 자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란 ‘예루살렘의 당나귀’(마르 11,1-11 참조) 같은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당나귀, 그 당나귀가 만일 사람들의 환호소리를 듣고는 으스대며 건방을 댄다면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환호소리 앞에서 도리질을 하며 ‘한갓 동물인 저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등에 태운 채 사람들을 피해 달아난다면? 그 역시 꼴불견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신의 등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환호가 자신을 향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인 것이다.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당나귀의 올바른 모습은 겸손함과 당당함이다. 사람들의 환호소리가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등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기에 그 걸음걸이가 당당할 수 있다. 당나귀로서의 자신은 낮춰도 등 위에 모신 주님은 결코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 마찬가지다. 사제는, 아니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 잘난 맛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 안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스스로는 겸손하되 복음 선포자로서는 당당하고, 스스로는 가난하되 은총의 전달자로서는 부유하며, 스스로는 온유하되 복음의 수호자로서는 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오로의 “모든 이에게 모든 것”(1코린 9,22)이란 말씀을 내세우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반길 만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오로의 그다음 말씀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신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1코린 9,23) 결국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 입맛에 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불변의 복음적 가치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 복음으로서 함께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지 벌써 이천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은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늘어났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만큼 복음화되었을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만연하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다. ‘자존심도 없는 인간’이란 소리는 듣기 싫어하면서 ‘복음적 자존심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모습들! ‘세상에 불을 질러야 할 복음’(루카 12,49 참조)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한 것’(묵시 3,15-16 참조)으로 변해버리고 ‘세상에 칼이 되어야 할 복음’(마태 10,34 참조)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는, 그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야 할 말씀’(히브 4,12 참조)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뎠 대로 무디어져 ‘돼지도 짓밟고 물어뜯을’(마태 7,6 참조) 정도가 되어버렸다. 스스로 복음 선포자라 자처하지만 그 삶 어디에도 불을 담을 만한 뜨거움도 없고 칼을 담을 만한 날카로움도 없다. 그렇게 미지근하고 무뎠어져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요 한낱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을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 시대, 교회는 많은데 구원은 부족하고 말씀은 난무하는데 복음은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요한 6,60)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 좋게 당신의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다. 결국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다(요한 6,66 참조).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루카 13,31)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충고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루카 13,33)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복음적 자존심을 지키는 삶이란 이처럼 끝내 죽어야 하는 삶이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자존심을 버리는 이유 역시 죽고 싶지 않아서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약속하신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마르 8,35)

그리고 보면 박해는 사라지고 신앙은 자유롭지만 여전히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묻는다.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이 질문에 우리는 복음적 자존심을 한껏 들어 높이며 이렇게 답해야 한다. “보면 모르오?” 정녕 자존심이란 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견진성사
 일사: 9월 8일(수) 19:30
 장소: 사천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교구/본당

예신, 여성소 모임
 일사: 9월 12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비대면("ZOOM")
 일사: 진주, 거제지구- 9월 12일(주일) 13:30~17:30
 주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루카 24,15)
 강사: 윤만근 모세 신부(살레시오회)
 준비물: 'ZOOM'이 가능한 장비(PC, 태블릿 PC, 스마트폰), 필기구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카카오톡 채널 '마산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부'

52차 선택주말
 일사: 10월 16일(토)~1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46차<2016년 11월>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등
 신청: 9월 23일(목)까지
 문의: 장혜민 리마 010·4288·2698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문세창(베네딕도), 방지애(스콜라스티카)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사: 9월 9일(목)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기타

가톨릭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접수: 9월 10일(금)~14일(화)
 문의: 043·270·0100~0102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접수: 9월 10일(금)~10월 4일(월)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2022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접수: 9월 10일(금)~14일(화)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모집전형: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문의: 입학사정관 권혁민(루카) 051·510·0705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psi.cup.ac.kr) 참조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안내
 미래 100년 새로운 창학
 모집인원: 3,045명(수시 2,796명)
 • 유스티노자유대학 신설(전면 온라인강의)
 •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 3년만에 졸업 및 전문자격증 취득
 • 다양한 장학혜택 및 저렴한 학비
 문의: 053·850·2580(입학상담)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접수: 9월 13일(월)~30일(목)
 ▶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문의: 061·432·9241

청주가톨릭학원 및 충북교육청 소속 시각장애교육 충주성모학교 입학 안내
 대상: 유/초/중/고/전공과(연령무관)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제주 1일 성지순례 59,000원**
 제주도 성지 6곳 / 4명이상 출발

■ **한국성지 167 완주**
 10. 25.(월)~10. 28.(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도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자격: 시각장애등급이 있거나, 시력 사용에 불편함이 큰 사람
 특장: 학비 무료, 다양한 장학금 지급, 기숙시설 이용 및 시각보조기기 지원, 안마사 자격증 취득 및 맞춤형교육 등
 협력: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 상시 운영
 문의: 043·852·1374
<http://school.cbe.go.kr/chungjium-s>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성지순례피정: 9월 12일~15일/ 9월 25일~28일/ 10월 2일~5일
 자연순례피정: 10월 21일~23일/ 11월 20일~22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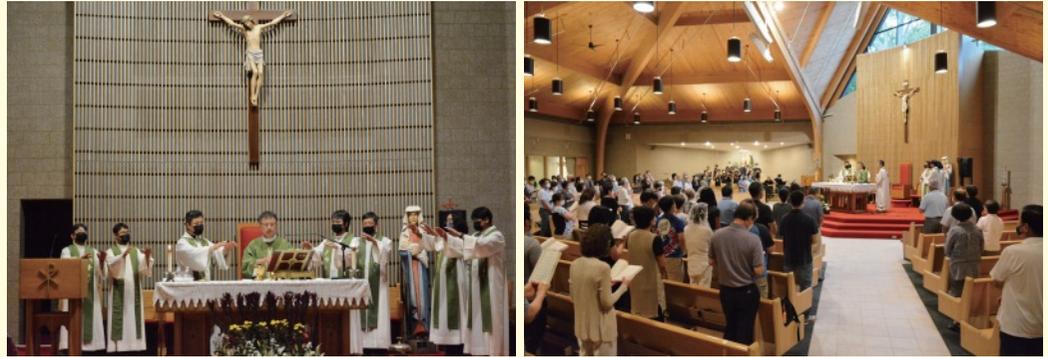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9월 12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31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1)신문, 출판/ 2)영화, TV/ 3)라디오, 인터넷/ 4)교구, 수도회

대상: 2020년 11월 1일~10월 15일 사이 발표된 작품
 접수: 10월 15일(금)까지 우편,

메일(mscm@cbck.kr) 접수
 문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6/ <http://www.cbck.or.kr> 참조

미국 교포사목 사제 모임



미국 교포사목 교구 사제 모임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성당(주임: 임성진 요한 신부)에서 있었다. 미국 내에서 사목하는 교구 사제 8명(LA, 덴버, 스프링스, 뎀피스, 어그스타, 신시내티)이 참석하여 친교를 나누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고해성사와 안수미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김정훈 라파엘 신부(덴버성당 주임)는 미사 강론에서 “신자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 하느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신다”며, 모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하였다.

그라츠-섹카우교구 자매결연50주년 기념행사



1971년부터 마산교구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오스트리아 그라츠-섹카우교구와의 자매결연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이 행사와 그라츠교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1년 9월 25일(토) 10:3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내용 · 감사미사/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집전
 ·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 출판기념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가인원 수를 제한함으로 9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청 사무처 055.249.7016



이제, 우리 차례!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벼락거지’, ‘꽤닉바잉’, ‘영끌’ ...

봉쇄수도원 안에서도 이런 생소한 신조어들이 낯설지 않은 이즈음, 비교적 최근에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갑자기 들이닥친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시 심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압력을 견디다 못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줄을 놓아버리게 되는지 아픈 마음의 심로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하루 평균 35명으로 1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에까지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한계 상황, 사회적 소외, 치유 불가능한 병고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가족이 굶주리게 되는 상황 앞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체감하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실제로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마시고 잘 자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극단적 위기와 위협에 노출되어 쓰러져 있겠는지를 헤아려 봅시다. 그러한 저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재촉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이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벼랑 끝 일생을 변화시키는 주님 자비와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일깨우시며 우리의 좁은 시선을 넘어서고, 마음의 벽을 허물라고 촉구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기 내어놓으심, 그리고 이 하느님 아버지의 자기희생의 온전한 회향이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내 전대미문의 ‘부활’이라는 새 창조를 이루셨듯이, 이제 우리 차례라고 이 자기희생의 계보 위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절체절명의 시간이 되어서야 평소 실력이 드러나듯이, 우리 선조들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죽음으로 증거할 수 있었음은 평상시에 하느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봉헌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 선조들께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기려 하는 이 대열에 함께합니다. 그전에 먼저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로부터 받은 생명, 당신께서 새로이 창조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저는 저의 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저의 형제들을 위하여도 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말로나 혀 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도록(1요한 3,18) 힘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